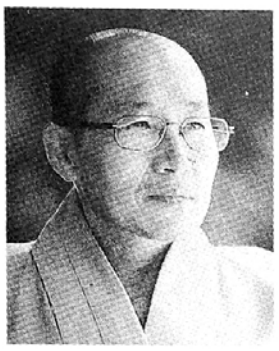
"시조로 읽는 경전 아시나요"


◇경암스님

◇심종선씨

경암스님, 아함·반야·법화부 등 시조로
심종선씨, '시조금강경' 계간지 연재

불교초심자가 아니더라도 경전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경전의 딱딱함과 난해함을 뛰어넘어 쉬운 말과 우리 민족 고유의 시가형식인 시조로 재구성해 일반 불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형태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 없고
삼라만상 찬란함도 참모습이 아니란다
이 진리 손에 잡으면 여래진신 만나리

따뜻한 임의 미소 봄햇살로 쏟아지고
켜켜이 쌓인 번뇌 눈사태를 만났구려
이제사 세상 내려다 볼 밝은 두 눈 달았네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게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忘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를 시조화한 것. 시조시인 심종선씨(51·부산불교문인협회)의 작품이다. 심씨는 계간지 '실상문학' 봄호에 '머무는 곳 없이 네 마음 흘러라'는 제목으로 시조 금강경을 발표했다. 2년여의 준비끝에 태어난 '머무는 곳…'은 총 150여편의 연시로 구성될 예정으로 현재 30수가 발표됐다. 한때 출가의 길을 걷기도 했던 심씨는 "경전은 난해한 용어와 반복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면서 "많이 독송되고 있는 금강경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와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을 어떻게 하면 일반에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다 우리 민족 심성과 잘 어울리는 시조에 담았다"고 말한다. '머무는 곳…'은 단순한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경전구절에 대한 시인의 감동과 느낌까지 아우러 한결 문학적인 맛이 느껴진다는 평.

함축미·정형미 돋보여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감동과 느낌까지 표현

지난 79년 월간 '법시'에 부처님 전생담을 시조로 발표하기 시작해 20년 가까이 '경전의 시조화'를 해오고 있는 경암스님(불입종 총무원장). 스님은 1972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조시인이다.

경암스님은 부처님 전생담을 비롯 아함부 반야부를 거쳐 현재 법화부를 시조로 창작해 계간지 '불입'에 발표하고 있다. 반야부의 공(空)사상을 시로 창작할때 언어로의 표현이 특히 어려웠다고 회고하는 스님은 "시조는 총 40~50자의 정형시이기에 불경을 시조화하면 압축미와 정형미가 돋보여 그 가르침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며 부처님의 사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 경전을 읽고 또 읽으며 구상과 퇴고를 거듭한다고.

이번 법화경이 끝나면 열반부 화엄부를, 그리고 조사어록도 시조화할 계획이다. 스님은 시작(詩作)이 완료되는대로 발표됐던 시조들에서 가려뽑고 주석과 용어풀이를 붙여 단행본으로 펴 낼 계획이다.

심종선씨도 인연 닿는대로 다른 경전들도 현대적인 용어로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원력을 펴보이며 시조금강경의 연재가 끝나는 내년 여름쯤 책으로 엮을 생각임을 밝힌다.

이경숙·천미희 기자

불심시심 〈119〉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다

禁足銀山下 (금족은산하) 발길을 끊으라 은산이 내리고
觀心玉府開 (관심옥부개) 마음을 살피라 백옥 궁전 열리다
虛窓飛絮舞 (허창비서무) 허공의 창에는 나는 솜의 춤이고
斷壑積鹽頹 (단학적염퇴) 잘린 골에는 쌓인 소금이 무너지다
戴白松應老 (대백송응로) 흰 색을 이었으니 소나무는 늙고
埋靑竹未胎 (매청죽미태) 푸르름을 묻었으니 대는 잉태할 수가 없네
乾坤多造化 (건곤다조화) 건곤은 조화력도 많으니
枯木放花來 (고목방화래) 늙은 나무에도 꽃을 피워 주네.

위 시는 경암(鏡巖 1743~1804)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응윤(應允)이고 경암은 호이다. 속성은 민씨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5세때 배움에 들어 9세에 이미 경사(經史)를 통했다 한다.

13세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15세에 출가하고 한암(寒巖)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두루 여러 곳을 참학하다가 마침내 한암대사의 문하로 다시 돌아와 28세에 강당을 열어 대중을 교화하였고, 후에 배우려는 이가 운집하여 대종사로 추대되니, 이로하여 청허당의 8대 손이 된다.

위의 시는 '은신암에서 눈을 읊는다(隱身庵詠雪)'는 제목의 시이다. 눈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여 여실하게 서술한 시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기림을 받았으니 위의 시도 그러한 시인적 분석의 안목을 보이기에 적합한 시라 하겠다.

첫 구에서부터 내린 눈을 어떤 사물로 대유하고 있다. 온 세계가 은으로 덮여 있다. 은산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저 은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금족령을 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두절시키고 있다. 출입을 막아 놓고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백옥의 궁전, 곧 신선들의 궁전이다. 선가의 수양을 강조한다.

나는 솜(飛絮), 쌓인 소금(積鹽)으로 비유한 점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창 밖의 눈은 봄날 버들개지에서 나는 솜털의 하늘거림이고, 내리어 쌓인 눈은 소금더미가 쌓이다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것이다. 소나무는 하루 저녁 사이에 백발이 되어 늙었고 대나무 숲도 희게 묻혔으니 거기서 새 순이 나리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새 순을 잉태(胎)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시 수사의 묘미다. 온갖 숲이 백설이 아닌 백화로 덮였으니 천지의 조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 시는 이렇듯 전 편이 사물을 새로운 물체로 분석하는 시인적 안목에 이끌리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기봉스님 불교사진전에 전시되는 작품 '기원'.

기봉스님 사진전

삼보사찰 전경등 40여점 전시

10~17일 진주서

기봉스님(하동 보문사 주지)의 4번째 불교사진전이 10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98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불상들과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3보사찰의 전경, 사찰의 4계, 청학동의 모습 등 칼라사진작품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기봉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우면서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킨 사찰의 모든 것을 포커스에 담아보았다"면서 "불자들이 이번 사진전에서 이심전심으로 진리의 법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봉스님은 8월 서울신문 갤러리에서 또 한번의 사진작품전을 갖고 작품집도 펴 낸다. (0591)759-0501

부산BBS합창단 창단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 합창단이 창단됐다. 21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등 부산불교계 인사와 합창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성태교수(동의대 음대)를 상임지휘자로 홍순남 단장을 비롯한 80여 단원은 3월중 창단기념 음악발표회를 갖는다.

◇봉서사 영산작법 시연모습.

봉서사 영산작법 전북문화재 지정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이 지난해 12월 24일 전북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됐다.

봉서사 영산작법보존회(회장 남파)는 태고종 전북총무원의 후원을 받아 이를 기념하는 경축법회를 11일 오전 11시 봉서사에서 봉행한다.

봉서사는 범패의 시조 진감국사가 전수해 준 이래 1200여년간 많은 범패스님을 배출해 낸 곳. 옛부터 범패와 작법에 능한 대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86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체부장관상을 받기 전까지는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영산작법보존회로 개칭, 불교의식을 통해 전법도생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범패에 일암스님(전주 실상사 주지)이, 작법에 석정스님(전주 극락암 주지)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봉서사 영산작법은 서울 봉원사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규모는 작지만 소박하면서도 민속적인 면이 강하게 풍긴다.

박물관 전시실 유물마저 훼손

민경희교수 "미생물에 의해 손상…대책 시급"

박물관내 밀폐된 전시실과 수장고에서도 미생물에 의해 문화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월20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민경희) 학술대회에서 민경희교수(숙명여대 생물학과)는 '박물관내에서의 미생물 분포와 문화재의 훼손'에서 "박물관별 미생물 분포를 조사한 결과 수장고보다는 전시실, 박물관 내부보다는 입구, 휴관일보다는 개관일의 미생물 분포가 더 많았다"며 "관람객의 출입에 의한 외부와의 공기유입이 미생물 분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교수는 "문화재의 병을 치유하는 보존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은 물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관련 분야의 통합학문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며 "각 대학에 보존과학과가 신설돼야 하며, 독립된 문화재보존과학기구가 하루바삐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조문화재의 보존대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이상헌교수(강원대 지질학과)는 "석굴암, 감은사지 3층석탑, 정암사 수마노탑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 기초적인 조사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풍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원인을 분석, 이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박물관 전시실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문화재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 재개

4월부터…사역확인등 고증후 복원

팔만대장경의 관각성지 강화 선원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선원사(주지 성원)는 2월23일 선원사 유물전시관에서 불교언론 기자회견을 갖고 선원사 복원 및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초부터 선원사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이기동)이 실시하는 이번 발굴조사는 2억5천7백만원을 들여 선원사의 확실한 고증과 사역확인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차 발굴을 통해 거대한 사찰건물지의 유구를 확인한 바 있는 선원사지는 확실한 고증작업이 이뤄질 경우 2002년까지 16억3천3백만원을 들여 연차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장도감을 복원하고, 팔만대장경의 판각과정을 소개하는 전시특장시설을 설치해 향후 인쇄박물관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강화군은 강화문화유적권 정비차원에서 해안순환도로를 착공하고 있으며 선원사지 진입로도 곧 개통할 예정이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본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신심깊은 불자님들에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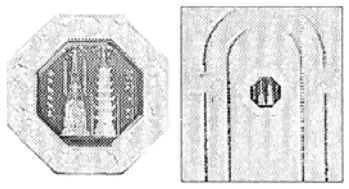
◎스님들께서는 어려우시드라도 가능한 시간을 내주시어 본회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스님께 도움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오며 실물을 직접보시고 스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 규격 : 8cm×8cm · 가격 :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파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 규격 5cm×5cm ·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메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충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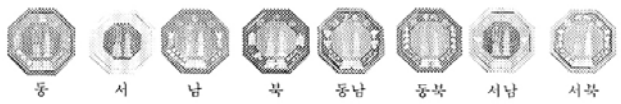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괘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팔괘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답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걸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니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괘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